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學校盟休風

一

學校盟休事件! 이는 近來에 와서는 學期末이나 學年末을 두고 거의 週期的으로 일어나는 例常事인듯하다 더욱이 今年에일으러서는 北에서는 咸興을 爲始하야 南으로는 所安島까지 中等에나 初等에나 勿論하고 이 學校盟休風이 물러불게되엿다 去月下旬頃에 나타난 總督府警務局保安課調査에 依하면 全鮮의 普通學校, 實業學校, 高等普通學校들 合하야 現在盟休中에잇는 學校數가 都合十五에 達한 모양인데 그 理由는 校長이며 敎員인 日本人에 對한 人種的反感에 依한 卽 敎員不信任問題가 第一位를 占하고 第二는 設備不完全의 口實이라고 한다」이 調査에 들지 아니한 最近의 三四校를 合하면 그 盟休學校數가 거의 二十에 達함을 볼수잇다 朝鮮에 學校制度가 施設되어온 以來로 地域으로 보거나 數量으로보거나 올해가 아마 가장 甚하다고 하겟다 이엇지 尋常히 看過할 問題이랴 吾人은 이러한 現象의 背面에 거트로 일컷는 가지가지의 理由보다도 더 깁흔 理由가 潛在하여잇슴을 凝視하는바이다

二

學校더욱히 中等程度以下의 學校에 잇서서는 德性의 涵養과 體質의 健全을 敎育의 主眼으로 삼고 智識의 陶冶는 그의 裝飾에 不過하다고 一般은 말한다 그러튼 理想的 敎育制度下에서 同盟休學은 웬일이며 甚至於 師長에 손을 대어 毆打逐出을 例事로하고 敎室을 封鎖하는 等 宛然히 修羅場으로 化함은 이무슨 誣測가 이와가티 甚하냐 富川郡의 龍來公普와 가튼데는 敎員間의 軋轢으로 敎員이 總免職되엿다고하니 어린 生徒들은 同盟을 기다리지 안이하도 自然히 休學하게 까지되엿다고한다 世相은 우숩게도 變한다고 慨嘆하는 사람이 만타 이나! 우숩게 되던지 조케되던지 世相은 變하는 것만은 事實인모양이다 열아서 被敎育者들의 벗최이는 思想까지도 變하여감을 그 뉘가 否定하겟느냐 오날의 學校制度를 돌아보자 이는 所謂武斷政治를 主張하든 寺內總督當時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곳이 잇는가 敎室에 까지 武威를 드날니든 佩劍이 업서젓스니 달기는 달은가보다마는 같은업서젓스나 그것을 차든 사람은 비와오는데 다름이 업스며 學課와 敎訓은 곰팡이가 쓰을피고잇다 世上의 潮流는 움직이고 生徒의 要求는 進步되어 마지아니한다 先生의 地位를 扶持하며 學校의 制度를 運用하는 者ㅣ 다 함께 이를 웨닷고 또이에 適應하랴 하는가 萬一에 適當한 制度일에 適當한 敎育을 하는데도 不拘하고 生徒들이 一時의 苟安과 첩업는 好奇心으로 盲動을 敢行한다 하면이는 어데까지던지 눈물진 懲戒를 사양치안을것이다 그러나 吾人은 近來의 學校盟休事件 더욱이 올해의 그것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모든것을 生徒들의 過失에만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나 苛酷한 偏見이 아닐가한다 하물며 警察까지 出動하야 突然히 嚴從에 適하는 態度를 取함에잇서서랴

三

그理由의 理由 그 原因의 原因 이것을 누구가 看取하여야할가 누구보다도 學校制度를 運用하는者 敎育에 몸을 받친者 그네들이 아니고 무엇이랴 말한바는 師弟間의 疎隔이라는 點이 그 첫 理由의 民族的偏見으로 말미암은 바도 한 말이다마는 어린兒童과 老成한 先生과를 比較해볼때에 어느편이 民族的偏見이라는 조치못한 人間性을 豐富하게 가졋스랴 萬一에 生徒間에 이러한 偏見이 發動햇다면 그것을 注入한 곳은 어데서부터이겟느냐 또 둘재 理由의 設備不完全이라는 點을 두고 보자 오늘날 朝鮮의 살님사리는 모든方面에 貧窮함을 免치못한다 그럼으로 敎育施設도 完美함을 期約치못하겟지마는 朝鮮의 敎育施設은 往往이 外觀의 眩恍함을 자랑하고 內實의 充足함을 돌보지 안는 弊가 적지아니하다

이에 吾人은 생각건대 所謂學校盟休라는 不祥한 風潮를 一掃코자할진대 먼저 植民地的 所謂特殊敎育制度라는것을 撤치어 참으로 大衆이 사람으로서 要求하는 바에 適應한 制度를 세우지 아니치못할것이며 또한 敎育者를 嚴選하야 個人의 生計만을 爲한 職業的 分子를 排棄하고 純眞한 敎育의 師表를 求하지 안을 수 업다 그러나 오늘날의 制度 알에서 이러한 理想을 云謂함이 한갓 理想에만 그치지안을는지도 모르겟다 그러타 이러한 理想은 達키 爲해서는 한가지로 究竟的 解決을 엇기까지 우리들은 協力하야 나가기를 바라는바이다

會議의 繼續疑問
現狀不變이면

(제네바八日發) 日本全權은 八日全權會議에 日英米水上艦艇을 英四十八萬噸, 米四十五萬噸, 日本三十一萬五千噸으로 定할 것이라는 案을 提出한바 本案은 驅逐艦七萬噸을 合한것이다 그런데 右提案은 九日執行委員會에 附議할터이다 더욱이 此에 對하야 何等의 讓步를 보지못하고 또 現在의 位置에 何等變化를 보지못할 때에는 十一日全權會議後에 會議를 繼續치못할듯하더라

巡艦案變更不能
會議停頓罪는在米國
◇英國全權의聲明

(제네바八日發) 英全權 뿌리치만 氏는 新聞記者團에 對하야 英國은 斷然 巡洋艦問題에 關한 政策을 變更할수업다고 聲明하고 다시 會議停頓의 罪는 米國에 잇다고 斷言하얏더라

委員會可決事項

(제네바八日發) 八日午前 開會한 專門委員會는 連日審議한 結果를 모아 報告書를 作成하야 執行委員會에 附議可決하기로 되엇는데 右報告書의 內容은 左와 如하더라

◇協定成立한 點
一、驅逐艦 最大噸數 千八百噸 驅逐艦 同上 千五百噸 備砲는 五吋 艦齡 十六年
二、潛水艦의 最大限度 千八百噸 艦齡 十三年
三、水雷口徑 最大限度 二十一吋
四、噸數六百噸以下 速力二十節, 口徑六吋砲 四門以上의 水上艦艇은 制限外로 한

◇協定成立에 至안한 點
一、巡洋艦의 大型及小型의 最大艦型及備砲口徑의 最大限度와 小型潛水艦의 最大限度
三、모든 艦艇에 對한 三國間의 比率
四、主力艦 問題를 討議할 與否의 件

觀測區區한 張氏日記者會見

(奉天九日發) 張學良氏는 九日午後四時부터 大帥府에서 日本記者團과 會見後時局에 對하야 談話를 求할터인바 아직것 記者團과 會見한일이 업는 張學良氏가 奉天派의 北京撤退는 가장 短時日間에 行하리라고 傳하는 時에 自發的으로 記者團과 會見하기를 請한것은 北京에 在한 奉天派의 地位는 風說以上으로 窮迫하지나 안엇는가 觀測된다 또 一說에는 楊宇霆, 張學良 兩氏는 北京에 가는 것을 中止하고 奉天에 그대로 잇스리라는 說도 잇더라

山東派遣 特科隊出發決定

(東京電) 第二次山東派遣兵에 編入될 千葉鐵道聯隊는 十一日午前十一時 中野電信隊는 午後一時 東京驛發西下하기로 決定하얏더라

青島人心洶洶
銀行休業、中國人避亂

(青島七日發) 靑島에 在한 各銀行은 七日以來休業하고 一般中國人等은 商品貴重品等을 日本其他의 外國倉庫에 預入한 後避難中이더라

日本增遣隊 十日朝出發

(東京電) 陸軍省公表‖第二次山東派遣隊의 乘船出發은 左와 如하더라
一、香港丸에 主力乘船
二、天潮丸에 三十九聯隊의 一個大隊
三、泰山丸에 野砲兵 二十聯隊의 二個中隊
四、香港丸 泰山丸은 大連에서 天潮丸은 旅順으로부터 十日朝發 十一日靑島着
五、日本에서 派遣할 鐵道電信隊는 十二日天城山으로 神戶發 十五日靑島着

日山東增兵과 米紙論評

(東京電) 今回의 日本山東增兵에 對하야 米國華盛頓『필라델피아』『시카고』等各新聞은 詳細한 報道를 하면서도 社說은 쓰지안코 단지 山東의 南部에 事件이 일어난 것은 日本 뿐만 아니라 各國에 對하야 不利이다 日本은 이제 새삼스러히 張作霖氏를 援助하지는 안흘 것이다 滿洲의 經濟的 開發은 가장 必要한 事이라고 論하엿더라

公州自働車 賃金引下
在來賃金보다 三分一을引下

公州는 忠南道廳所在地인 만큼 各地方人士와 通商人의 往來가 頻頻한바 唯一의 交通機關으로는 各地方으로 通하는 自働車 뿐인 것 外에는 營業者로서는 在來의 片路賃金이 누구나 다 高價의 感이 업지안햇든바 今般 道當局에서는 公州發展上 또는 來往人士의 多少經濟에 도음이될가하야 七月十五日부터 在來의 自働車賃金에 對하야 三分之一 平均의 價格을 引下하엿다는바 改正賃金은 左와 如하다더라 (公州)

◎公州‖鳥致院‖一圓五十錢 ◎公州‖禮山‖三圓六十錢 ◎公州‖論山‖一圓九十錢 ◎洪城‖水東里‖一圓七十錢 ◎挿橋‖瑞山‖二圓五十錢 ◎挿橋‖唐津‖一圓九十錢 ◎洪城‖泰安‖二圓三十錢 ◎論山‖扶餘‖一圓二十錢 ◎論山‖鎭岑里‖一圓四十錢

寧邊新興青年 方向轉換決議

去五日執行委員會에서 平北寧邊邑內新興靑年會는 그동안 萬般의 波瀾을 겪어왓는바 方向轉換問題에 잇서서도 大概意見이 一致되지못하는 關係가 至今까지 保留하엿섯는데 지난五日下午四時頃에 寧邊東亞日報支局內에서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常務委員인 金泰熙君의 司會로 方向轉換問題等을 提案할 際 金廷柱君의 産業組合組織에 對한 提議와 張學秉君 蔡龍瑞君의 寧邊에 當面한 問題等의 提出이 잇서 長時間의 討議를 하다가 常務委員의 作成하엿든 決議文은 若干의 添削이 잇슨後 通過되엇고 執行委員의 補選이 잇슨後 閉會하엿다더라(安州)

慶北盈德에 記者團發起
創總은十日로

慶北盈德郡은 近十年內로 新聞雜誌機關等이 잇섯스나 自體를 發揮치못하는 同時에 言論의 權威를 伸張치 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當地諸氏의 發起로 去七日下午四時에 當地靑年會館內에서 盈德記者發起會를 開催한바 臨時議長朱秉豪氏의 司會下에 李基錫氏 開會辭가 잇슨後 署名과 執行部選擧와 左記決議가 잇슨後 茶菓會로써 閉會하엿다더라(盈德)
一、議長 姜大習 副 李向郁 書記 劉能慶
一、常設機關으로하되 創立大會準備委員 朱秉豪 李基錫 姜忠根 被選
一、時日場所 七月十日下午三時 盈德靑年會館
一、規約制定은 準備委員에게 一任

大邱各少年團 合同宣言發表
大會日字는來十七日

旣報=지난六日 大邱少年團體가 모히여 合同에 關한 協議를 하엿다 함은 이미 報道한바이엇거니와 同合同準備委員會는 지난七日午後九時에 勞動共濟會館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合同宣言書及綱領을 通過한後 大會日字를 決定하엿는바 무슨 理由인지 모르나 大邱少年會는 脫退를 聲明하엿다는바 宣言書及綱領과 大會日字及場所는 다음과가티 決定되엇더라(大邱)
大會日字 本月十七日午後八時
場所 西城町勞働共濟會館
(宣言書及綱領은 略함)

●兪鎭範氏의特志‖江界郡公北面香河洞에잇는 兪鎭範氏는 在來敎育方面에 만흔 貢獻이 잇섯는데 이번 또 聯合運動會에 特히 多大한 金額과 그날 經費의 三分之二를 提供하엿슴으로 一般은 그 特志에 對하야 감사한다고(江界)

巨濟島의 甘雨
豐年을 豫期

慶南巨濟島에서는 約二個月동안 旱天이 繼續하야 一般農家에서는 憂慮하기를 마지아니하든中 지난六月二十九日부터 七月二日外지 多量의 甘雨가 나리어 移秧은 全部 終了되리라는데 甘雨는 方今도 連續한다더라

光州에豪雨

朝鮮寡雨로는 近日의 天候에 農家의 愁眉는 참으로 볼날이 업고 水道斷絶 人心洶洶하든次 七日朝黑雲이 南來하야 同日午後九時頃부터 바람업는 비 방울이 떨어지기 始作하야 五六時間동안을 通降하엿슴으로 旱魃로 만흔 苦痛을 當하든 이에 豐年前兆라고 喜躍하며 農家는 姑捨하고 一般民心은 洽然하다더라(光州)

昨年度의 法人所得總額
所得千六百餘萬圓 稅額一百八萬餘圓

昭和元年大正十五年度의 所得稅를 調査하면 納稅義務者의 實際法人數 七百廿六人 所得金額一千六百廿七萬二千六百八十四圓이오 此의 稅額은 百八萬七千三十圓으로서 此를 前年度에 比하면 法人數로 十一人 所得金額十九萬八千三百六十九圓 稅額二十七萬二千四百四十九圓이 各各增加하얏다 此를 所得別에 對하야 占한 比較를 見하면 配當所得의 所得金額五割三分三厘 稅額三割九分八厘가 最多하고 이다음에는 令第二條法人의 所得金額一割七分四厘 稅額三割五分八厘 留保所得金額一割七分五厘 稅額一割三分九厘 超過所得金額一割二厘로서 最少한 것은 淸算所得金額二厘이오 또 道別에 잇서서 所得金額 稅額의 實數及總計一千에 對한 比率을 示하면 京畿道의 所得金額五六、〇 稅額六五六、一이 最多하고 이다음에는 慶南의 所得金額八八、二 稅額六七、九 全北의 所得金額四五、六 稅額四五、六이라 順位이며 最少한 것은 忠北의 所得金額二、一 稅額一、七로 되엇스니 道別所得金額及稅額은 左와 如하다고

道別	所得金額	稅額
京畿	九、一九八、七九四圓	七三二、一八七圓
忠北	三四、四三一	一、八四八
忠南	七一七、〇四五	三六、〇一三
全北	八六七、八五九	四九、五三七
全南	七五三、一一五	四一、六六一
慶北	八〇四、一四四	四三、五五七
慶南	一、四三五、八八三	七三、八一九
黃海	三八、三三一	二、三〇三
平南	七七七、二三三	四三、五六五
平北	一四三、四九一	七、〇五五
江原	七九七、三〇〇	三八、一二三
咸南	四〇八、三七三	三三、三六七
咸北	二八一、八八九	一四、六六八
計	一六、二七二、六八四	一、〇八七、〇三〇

盈德普校生 農業實習擴張

盈德邑公立普通學校에서는 設立以來로 農業에 對한 各種實習이 充分하든바 去六日에는 同校高級生 五六學年生에게 水田實習을 施行케 한바 成績이 良好하다 하며 一般父兄들도 農業에 對한 實習을 直接

少年飲酒에 對하야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어느나라 어느社會를 勿論하고 그 나라 그 社會의 興亡盛衰는 오즉 그 나라 그 社會의 少年如何에 달린것이다 오늘날 우리 朝鮮에 잇서서는 더욱히 緊緊한 必要가 잇다

◇그런데 近來 長湖院 少年界는 風紀가 極度로 紊亂하다 中國料理집 出入은 勿論이어니와 色酒家 妓生집外지 出入함을 例事로 안다 例事뿐 아니라 한 能事처럼 생각하며 甚한 者에 잇서서는 계집을 어고 公公然하게 道路로 彷徨하기外지 한다 이는 去月十日밤 事實이다 一般에게 만흔 企待를 밧고 잇는 某某少年이 某中國料理店에서 妓生을 불러다 노코(酒와 色) 淫蕩한 醜態를 演하며 放蕩히 노는 것을 目擊한 이가 잇다 그들은 다시 그 妓生을 압세우고 妓生집으로 가더란다

◇아! 嗟흡다 少年諸君아? 우리는 一日이라도 밧비 滅亡하고 마는것이 조흘가? 千萬年 靑史에 永永 이것으로 끗을 막을것이냐? 아! 少年이라 하나 朝鮮의 運命을 左右할 諸君이다 極度로 頹廢하고 極度로 기울어진 慘狀의 朝鮮에서 更生의 朝鮮으로 引導할 活佛이며 救主이다 엇지 이러한 重大한 責任을 생각지 못하고 洋洋한 前途를 그릇치라 하는가?

◇오 諸君! 父兄諸氏여! 先覺諸氏여! 그들은 아즉 是非善惡을 確實히 判斷하지 못한다 海上에 孤舟와 如히 바람부는대로 물결쏫는대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갈 수 잇는 것이다 그들은 善을 보면 그 善을 模倣하랴 하고 惡을 보면 또한 그 惡을 模倣하랴 한다 이것이 普通少年의 心理이다 諸氏여! 그들에게 무엇을 模範되게 하고 무엇을 指導함이 잇는가? 諸位는 오죽 酒肆靑樓와 射弓博奕으로 일삼엇다 그리고도 그들을 批評하고 辱한다 此所謂 나는 바담풍(風)하야도 너는 바담풍하라 함과 무엇이 다르리오

◇諸氏여! 좀더 自身부터 愼重히 하야 父兄되고 先覺된 責任을 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릇이 잇거든 正正當當히 責하고서 指導하라(長湖院一學生)

九鳳學院曙光

江界郡公北面香河洞에잇는 九鳳學院은 從來 一般有志諸氏의 힘으로 維持하여 왓섯는데 이번에 더욱 擴張하려고 田世宗氏外數十人의 發起人들이 모여 共同所有 若三千餘圓을 同學院基本金으로 提供하자는 決議가 有하엿슴으로 九鳳學院은 益益充實되리라더라(江界)

廣州郡松坡에 體育會創立

廣州郡中垈面松坡里에서는 恒常 體育機關이 업슴을 一般이 遺憾으로 思할 뿐만 아니라 道內에서 屈指하는 集團地로서 他郡에 比하야 運動線上에 立脚하야 後進됨을 憤慨히 녀기든 同時에 體育을 奬勵하며 運動을 普及키 爲하야 數朔前부터 某某諸氏의 發起로 各有志諸氏의 贊助를 得한後 本月六日下午四時 松坡公普校內에서 有志二十餘人이 會合하야 松坡體育獎勵會의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金東稍氏의 簡單한 開會辭와 張景煥氏의 規約說明이 잇슨後 規約通過와 維持方針에 關한 討議가 有한後 同下午六時에 茶菓會를 마친後 閉會하얏는데 役員은 左記와 如히 選擧하엿더라(松坡)

▲會長 金東稍 運動部長 八丸正吉 會計 趙敦七 幹事 張景煥 林湖圭 張德祚 閔用洪 旋杓 十河官太郎 外三人

新幹任實支會 第一回臨時大會

新幹會任實支會에서는 去七日下午四時부터 本會館內에서 第一回臨時大會를 開하고 議長朴泰鎭君의 開會辭를 비롯하야 會員點名 綱領朗讀 經過報告가 잇슨後 左記事項을 決議하고 同六時半에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任實)

◇決議事項
一、新入會員審査에 關한件
一、部門增設에 關한件 調査研究部 宣傳部兩部選擇
一、幹事增選에 關한件
一、財政에 關한件
一、印章에 關한件
一、學生部에 關한件
一、事務分擔에 關한件

第二回幹事會

新幹會任實支會에서는 지난七日 大會에서 決議한 條項을 幹事會에 一任한바잇서 大會를 마치자 同下午八時에 第二回幹事會를 開하고 左記와 如한 條項을 決議後 閉會하엿다더라(任實)

◇決議事項
一、事務擔當에 關한件
庶務部 總務幹事 崔一 常務幹事 宋奮在 洪
財政部 總務幹事 朴茂洙 常務幹事 文卓根
調査研究部 李泰雨 文炳國
宣傳部 洪淳杓 朴世洪 文明根 朴榮祚
一、學生部에 關한件
執行委員 李明壽 崔一 文炳國 李泰雨

長淵郡廳에 對한 邑民의 非難
‖下水道工事로 收金하야 道路의 修築만을한다고‖

黃海道長淵郡廳에서는 邑內의 下水道工事를 한다는 名義로 住民들에게서 一千五百圓이라는 巨額의 金錢을 거두워 가지고 目的한 下水工事는 不顧하고 單只 市街地의 道路만 修築할 뿐 아니라 그런中에도 路面만 도두어 더욱이 路邊家屋에는 기둥밋外지 파노흔 까닭에 一般의 寃聲이 藉藉할뿐 아니라 官邊에서外지 今番工事에 對하야 非難하는 모양이라더라(長淵)

來年度鐵道局의 所要枕木百萬挺
四十萬挺은朝鮮產으로購入

來年度의 鐵道局所要의 枕木은 保存工事外 建設改良의 新規計劃의 着工에 伴하야 本年度購入量보다 二十萬挺增加의 約百萬挺의 豫定인데 此의 需給에 關하야 鐵道局에서는 朝鮮產枕木의 消費率上 可成的 朝鮮產의 枕木을 購入할 計劃이나 本年度의 購買狀態를 觀察하면 總數量 八十萬挺中 四十萬挺은 北海道產이오 四十萬挺은 朝鮮內各地로부터 購入하기로 하고 其中 北朝鮮產 十二萬挺 咸興方面으로부터 三萬挺 新義州地方으로부터 二十五萬挺의 納入契約을 締結하얏다 大體로 朝鮮에 잇서서 枕木의 取換期는 每年解氷後 雨季外지의 동안을 가장 好時季라 하는 關係上 短期間에 多量의 需要가 잇스나 朝鮮內에는 大量生產의 製材工場이 缺乏하야 如斯 自給自足의 機運에 到着치 안코 自然北海道產의 供給을 仰함은 不得已한것이며 本年度所要의 百萬挺도 過半數는 日本產品을 購入할 수밧게 업다고 觀測한다 그런데 納入單價는 本年度平均額은 二圓十五六錢 假量이라더라

地方紹介(21)
鐵道網에 얼킬 山邑王國
江界郡 其四

明新幼稚園

幼稚園으로 말하면 頗히 旺盛한 感이 잇서 江界邑內에 二個所가 잇는데 하나는 江界社會의 힘으로 되어가는 宗性幼稚園이고 또 하나는 長老教經營의 明新幼稚園이다 前者는 한 三年前에 設立되어 今日에 園兒六十餘名에 保母二名 助手一名으로 將次 우리의 새主人을 養成하고 잇다 그리고 後者 明新幼稚園은 前者와 거의 同期에 設立된것인데 米國女子 李雨露氏의 盡力에 되것으로 園兒五十餘名에 이른다 그리고 宗敎로 말하면 江界地方은 거의 다 佛敎이지만 그中에도 佛敎를 밋는 사람이 百名이 되나마나하는 形便에 잇다 이 地方의 寺刹은

禪宗兼學은

宗派으로 하고잇는데 그 本山은 寧邊妙香山普賢寺이다 子北寺 午南寺 外寺刹이 五個所나 잇서 念佛소리 鐘소리가 끈히지 아니한다 그리고 耶蘇敎가 旺盛하야 各地에 相當한 勢力을 엇고 江界邑만 하여도 信者가 千餘名인데 全郡으로는 三千名은 될것이다 敎會는 곳곳이 잇서 平北에서는 宣川다음에 가는 旺盛한 곳이다 西洋人宣敎師 二人 朝鮮人牧師 一

耶蘇教만은

人인데 敎會經營으로 學校 病院도 잇다 그다음으로 天道敎인데 江界邑에 堂堂한 布敎所를 設하고 信徒만 하여도 相當하다 그外에 侍天敎 有耶無耶 될 것이나 한 二千名은 될 것이다 其外에 侍天敎 白白敎 普天敎 等이 잇스나 普天敎가 昨年봄부터 들어와서 愚昧한 農民間에 大大的 歡迎을 바더 普天敎가 昨年봄에 처음으로 움(芽)도드라 할때에 當地靑年修養會에서 그를 撲滅키를 聲明하엿스나 오날 그 効果를 보지못함은 힘이 微弱함인지 運動을 始作치 아니함인지 如何間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다음 衛生狀況으로 말하면 衛生에 對한 常識이 啓發되지 못하야 오래동안 習慣된 陋習과

本報二個月分進呈 投稿者江界 金莉鉉

傳統的迷信

을 바리지 못하얏는데 特히 이 地方에 肺結核과 『되스토마』가 近來에 만히 퍼젓나 그外에 『마라리야』 痢疾도 커우익이 만흔 便이라 하겟다 그러나 醫療機關은 그가 相當한데 江界邑內에 道立醫院과 私立으로 同仁醫院 兄弟醫院 桂禮智病院(西洋人經營)等이 잇고 前川市에 氣山醫院 滿浦市에 麥山醫院等이 잇스며 其外 村村에 醫生도 만하 醫療機關은 充分한 便이라 하겟다 江界는 山間都邑으로도 前述한 바와 가튼 歷史를 가지고 잇는데 딸아

名勝古蹟도

적지 안코 江界邑內에 만도 仁風樓 居然亭 世人의 이미 아는 바 그리고 景美亭 鎭朔樓等이 잇스나 南山射廳 고 碑라 고 잇스니 谷公會堂 자리인데 變亂에 光當 키爲하야 約八十年前에 平南安州方面으로 運搬한 多量의 소금(鹽)을 무더 碑石을 세워둔것이라는데 그 碑石은 지금 郡廳構內에 옴기어 잇다고 한다 그外에 滿浦에 洗劍亭 前川에 風穴 公北에 午南寺 奉天臺等이 적지 안흔데 其名勝을 딸아 探勝客이 만히 지 안는다 이러한 江界地方은

發展途中에

잇스나 將次로 山邑으로 王國이라는 이름을 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孟中里로부터 江界에 이르는 私設鐵道와 咸興으로부터 江界를 終點으로 하는 森林鐵道와 鴨綠江沿岸으로부터 江界를 지나 新義州外지 이르리라는 國境鐵道가 完全히 竣工되는 날에는 物産의 集散은 繁華하여지고 市街地도 擴張될것이니 江界야말로 커다란 곳에 石炭이 가나고 등閑히하지 못할 地方이라 하겟다 —(完)—

仁川新正會의 思想講演
十日夜公會堂에서

仁川新正會의 第一幕事業으로 思想講演을 開催하기로 第二回委員會에서 決議하얏다 함은 이미 報道한바어니와 朝鮮思想界에 聲名이 籍籍한 金俊淵先生을 招聘하야 來十日午後八時부터 山手町公會堂에서 思想講演大會를 開하기로 되엇는바 同先生의 長廣舌을 吐할 演題는 『社會運動과 民族運動과의 關係』이며 同大會를 앞에 둔 一般府民有志는 미리부터 苦待中임으로 當夜는 반드시 盛況을 呈하리라더라(仁川)

吳氏의特志로 成仁幼稚園 園舍를建築

旣報=京畿道驪州郡邑內 成仁幼稚園은 創立한지 四五星霜동안 가진風霜을 겪거가며 어린人材를 養成하여오든中 不幸히 經費困難으로 廢止의 悲境에 싸지게 된 것을 同郡上里 吳順熙女史의 犧牲的 救援으로 維持하여 왓스나 園舍가 업슴으로 本郡郡守 文發善氏와 同邑有志諸氏가 苦心努力하여 오든바 본시 慈善心이 豐富하고 敎育事業과 社會公益이라면 同情이 多大하든 本邑倉里의 吳齊萬氏는 現金一千餘圓을 寄附하야 新園舍를 建築하게 되엇슴으로 關係諸氏는 勿論이어니와 地方人士는 氏의 篤志를 稱頌不已한다더라(驪州)

原州郡의 春蠶收繭成績

江原道原州郡農會에서는 今年春蠶繭共同販賣를 去六月十三日부터 七月六日外지 二十四日間을 두고 邑內上洞里廣藏亭 興業面文布里 神林面神林里 三個所繭場에서 取扱하엿는바 全郡收繭高와 代金은 如左하다더라(原州)
收繭高 一千四百四十八石二斗九升四合 代金 六萬四百六圓四十三錢

不良水利組合의 救濟는不可能
救濟難으로 當局頭痛中

總督府는 旣往부터 不良水利組合의 救濟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企劃하얏스나 補助金의 增額과 借入金의 低資乘換等에는 名案이 無한데 이것도 모다 實現難으로 而新中인바 今年의 低資百萬圓은 이方面에는 全然供給이 不可能한데 不良水利組合中에서도 가장 惡한 것은 迎日(慶南) 文幕 高城(江原) 臨津 津南(京畿) 博川(平北)의 各組合이라더라

新昌勞組納涼會

新昌港勞働組合에서는 七月五日에 本里蓮峰山에서 納涼會를 開催하고 七十餘名의 同무들이 會合하야 眞老松下에서 酒盃를 相交하며 猛暑와 다투어 勞働하던 疾苦를 이저버리고 깃분노래와 快樂한 우슴으로써 하로를 보냇는데 더욱 本組合의 常務執行委員 宋治玉氏는 有產者는 黃金萬能을 誇張亂暴하나 우리는 이 소리에 겁내지 말고 오즉 無產者의 唯一한 武器인 團結을 恒常 腦裡에 深刻하여 두자는 簡單한 講座가 잇슨後 日暮에 高歌亂舞로 歸途를 밟엇더라(新昌)

平南德川郡 儒林會의臨總

平南德川儒林會에서는 지난七日 鄕校內에서 會長孔濟氏司會下에 臨時總會를 開하엿는바 第一次로 會則改廢를 하고 第二로 左記新役員을 選任한後 이어 決議事項에 들어가 德川에 在籍者로 他地留學生들에게 奬學費給與의件에 對하야 第二次로 京城에 共同宿舍를 設置하자는 便과 旣設된 平壤共同宿舍는 如前히 經營하고 其經營費年六百圓을 除한外 一千七百圓은 京城及派外를 一等地 其他地方을 二等地로 하야 一等地는 十五 二等地는 十의 比로 分하야 各自에게 給與하자는 便과 全額을 平均히 等分하여주자는 便과의 主唱으로 意見이 百出하여 一時場內는 順序를 찻기가 難하엿섯는데 結局은 平壤共同宿舍를 經營하고 餘額으로 一二等地로 別하여 分配하여주기로 議하고 其他未決事項은 評議會에서 하기로 한後 同午後四時에 閉會하엿는데 前記決議事項의 實現은 來九月中旬에 되리라더라(德川)

▲新選役員 會長 安炳珩 副會長 徐丙勳 主務評議員 各面面長八名外八名

中和郡邑에 女子青年創立

中和邑內 女子團體가 無함을 大遺憾으로 생각하든바 宋順子孃과 金炳鉉氏가 女子靑年會를 發起하고 去六日下午九時半의 第一回發起總會를 邑內耶蘇敎堂內에서 開催한後 臨時議長宋順子孃의 司會로 綱領과 會規를 通過한後 任員選擧를 行하얏는바 當選任員은 左와 如하다더라(中和)
當選任員 會長 宋順子 副會長 李坤玉 書記 金錦順 會計 金炳鉉

德源郡에 庭球大會開催
元山斗湖倶樂部主催

元山市外斗南里斗湖倶樂部主催로 來七月二十四日上午九時부터 斗南里業舍學校안 倶樂部新舘球場에서 德源全郡庭球大會를 開催할터이라는바 大會의 規定과 全郡에잇는 體育團體로 하여금 庭球界의 優勝旗를 決定할터이라더라(元山)
大會規定
一、申請期日 七月二十日
一、申請場所 斗南里斗湖倶樂部事務所
一、抽籤日時 競技當日午前八時 競技場에서
一、參加組 每團體三組 後補一組
一、參加金 三圓(申請時納付)
一、競技用球 赤(M)엠

廣州에서도 新幹支會發起
臨時事務所는松坡青年會

廣州郡內에서는 有志諸氏의 發起로 朝鮮民族單一黨인 新幹會支會를 設立코자 臨時事務所를 松坡中央靑年會內에 假置하고 方今 廣州一圓을 通하야 會員募集及諸般準備에 奔忙中이라더라(松坡)

夏期講習開催
留學生親睦會主催

在京城松禾留學生親睦會에서는 休學을 利用하야 同會의 主催로 今月十一日부터 八月二十日外지 四十日間 夏期講習會를 開催한다는데 普通學校卒業程度者에게 常識本位로 左記學科를 敎授할터이며 講師는 金聲驥 徐戴冕 吳千植 三君外에 相當한 講師를 招聘할터이라는데 有意靑少年은 多數來會하기를 바란다더라(松禾)
講習科目‖英語 漢學 法制 經濟 生理 物理 日語 東洋史等 聽講無料

橫城郡의 春蠶販賣統計

江原道橫城郡農會에서는 今年度春蠶共同販賣를 邑內甲川屯內三面에서 施行하엿는데 今年에는 特別이 一般養蠶界를 一層奬勵시키기 爲하야 遊戱的으로 케비를끼를 하야 一般販賣者의 만흔 興味를 끌게되엇다더라(橫城)

元山仲介組合定總

元山仲介組合의 定期總會는 豫定과 가티 지난七日下午一時부터 元山客主組合內에서 組合長 金泰淵氏 司會下에 開催하고 當期經過報告 財政整理 決算承認 組合員負債整理 四團體同盟解除通告 新入組合員加入金 穀物市場加入等의 諸案을 無事히 決議한後 一般任員을 左와 如히 選定하고 同七時半에 閉會하엿다고(元山)
◇任員 ▲組合長 裴炳學 副組合長 趙鍾九 ▲理事 金祐根 ▲監査 李圭善 洪璣三 ▲評議員 金泰淵 崔錫納 安鍾奎 崔泳極 崔錫 范洪寬 姜斗顯 金貞植 尹鼓濟 崔光麟

牧島度量衡檢查

釜山府牧島에서는 十日午前부터 所管警察署에서 度量衡을 檢查하리라는바 近日米契法實施以後 不正度量衡을 使用하는者가 續出하야 此를 警戒하기 爲함이라더라(牧島)

釜山松島 海水浴場開始
浴客은汽船으로輸送

釜山松島海水浴場은 例年과 가티 今十日부터 開場하리라는바 同所經營인 釜山府에서는 今年度부터는 避暑地로 七千圓을 投하야 新設道路와 休憩室及脫衣場等의 諸般을 設備하얏다는데 九日부터 牧島와 南濱海岸棧橋로부터 汽船二隻으로 乘客을 取扱코저 運行을 實施하게 되엇다더라(牧島)

北青郡三岐 蠶繭共同販賣

北靑郡三岐에서는 去初三日부터 來二十日外지 十八日期間으로서 泥谷面事務所에서 繭共同販賣를 行하얏는데 一般營業家는 生繭을 가지고 四方으로 雲集하야 販賣場에 人山人海의 大盛況을 일우엇스며 一貫의 價格은 左와 如하다더라
特等 五、八〇 三等 四、三三
一等 五、三〇 四等 三、八四
二等 四、八二 五等 三、三五

光州教育普及會 理事會開催
來十一日에

光州教育普及會가 創立되엇다 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會에서는 來十七日午後三時에 光州普通學校內에서 理事會를 開催할터이라는바 同會理事는 光州有志人士를 網羅하엿슴으로 一般人士의 注目을 惹하는바라 하며 有始有終의 好結果잇기를 企待한다는데 討議事項은 任員選擧 豫算通過等이라더라(光州)

全州肉販定總

全北全州獸肉販賣組合에서는 去六日午後三時에 靑鶴樓에서 第三回定期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더라(全州)
◇決議事項
一、獸肉分配所新築에 關한件
一、行商人器具改造에 關한件
一、販賣所修理에 關한件
一、販賣에 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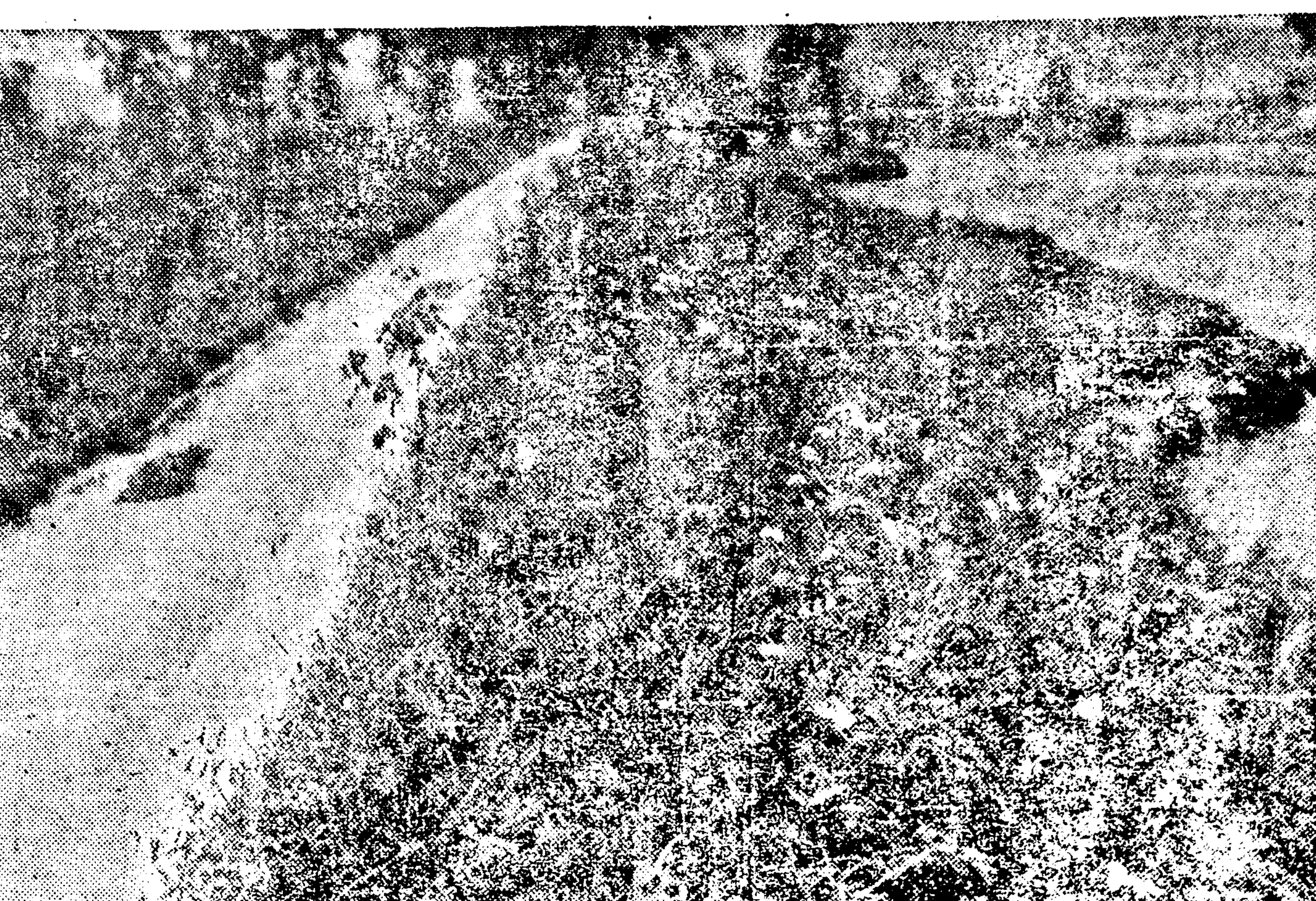
大新讀書會員活動

咸南端川北斗月面大新里讀書會에서는 七月一日부터 端川豐山甲山三邑으로 出張員六人이 分하야 出發하엿다는데 그 內容을 들으면 會가 創立된지 數朔되는 동안 보든 事業이 着着進行中 萬卷書類를 蒐集하야 一般會員에게 共讀케 하는바 그 會員三十餘名은 모다 「푸로」의 子弟임으로 經濟困難을 될수업는 逆境에 陷하엿던 것인데 마츰 當地大新商會에서 長品販賣를 七月一日부터 開始한다 함으로 이것을 引受販賣하야 幾分의 一이라도 經費에 補助할가 생각하고 會員中 有志諸氏를 選定하야 左와 如히 出張케 하엿다는바 出張員은 一般物을 携帶하고 巡回하는 것을 一般은 可矜하게 녀기는 同時에 地方有志로부터 만히 愛顧하여주기를 바란다 하며 出張員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더라(端川)
端川 李春還 朴在爵 羅鐘燮 張魯九 許昌吉 豐山 姜一龍 甲山 金斗煥

●取消申請 拜啓 五月二十八日 貴報第二四一二號朝刊第一面에 揭載된 『事賣局員의 不正當한 行爲』라 한 記事에 江界郡漁雷面豊淸洞 金宗憲의 罰科金을 關係도 업는 曖昧한 文用煥에게 徵出식혓다 云云한 記事는 事實無根이오니 此記事全部를 取消하여 주심을 望하와 茲以申請하나이다
昭和二年七月五日
平壤專賣支局江界出張所勤務 李錫求
朝鮮日報編輯人殿

第二回 全朝鮮庭球大會
七月廿四日釜山鎭 新績會社 코트 에서
『申請』同廿三日外지 主催側에 『規程』軟式庭球規則使用 球는 每團體三組 參加金 三圓
主催 釜山鎭靑年會
後援 朝鮮日報釜山支局

002751



◇……욱어진숩풀……◇

軍資募集員 二名을逮捕

강원함경일대에활동타가 원산에와서모사건을계획

元山署緊張

원산경찰서(元山署)에서는수일전부터아연히긴장미를띄우고무슨일인지적전교이남(赤田橋以南)의 일대를엄중경계망을치고잇든바 지난칠일오전 열시반경 부내○○여관으로 부터조선인 청년두명을 인치하고 림(林)사법계주임이하전부의형사가밤을새어가며 엄중히 취됴한결과 그두청년은 황해도신천군룡문면전산리(黃海道信川郡龍門面錢山里)에원적을둔 림창화(林昌華)(二六)와 평북도 운산군북진면교동(平北雲山郡北鎮面橋洞)에원적을둔 주룡구(朱龍九)(二四)로 본년삼월경부터통천、안변、영흥、함흥、장진、문천(通川、安邊、永興、咸興、長津、文川)등디로를돌아다니며군자금을모집하든시국범인인듯한것이판명되엇스며 그들은지난사일원산에와서○○방면에 잠복하야 덕원군현면(德源郡縣面)의모부호와원산에잇는부호의집에침입할계획을하고잇는것을원산서에서탐지하고그와가티데포한것이라더라(원산)

寶城公普盟休 事件一段落

학무위원알선으로

전남보성(寶城)공립보통학교학생 맹휴(盟休)사건은 긔보한바어니와 사건이자못 돌발뎍인만큼 쌍방의주장이 서로강경하야 형세는험정위험하야짐으로 당교학무위원들은 분연히 화의를열고 백방으로 알선한결과알에와가튼 조건으로 문데는원만히해결되고 학생일동은 칠일부터등교하얏더라

학생측은 설혹 사소한불평불만이잇드라도 부형 또는책임자에게의뢰하야 해결할계단을밟지안코 경미한사실과 박약한리유로 동맹휴업을 단행한것은 소학생으로서 경망한일인측 당연히자각하고 선생에게사과할일

선생측은 평소 부주의한과실로 그와가튼불상사를 내이게하얏스니 책임을 면치못할바이측 선생중문데인물은 당연히반성의뜻을학생에게표할일 (보성)

青年會의 紀念會도禁止

충북괴산군(忠北槐山郡)청천청년회(靑川青年會)에서는 지난륙일 오전십일시부터 동회관압식장에서 동회창립십주년 기념식을거행하엿다는데 식이 마치고간친회장으로밧귀어흥미잇게진행되는중오후세시경에괴산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 중산(中山)과천삼(淺森)두사람이돌연히모힌 군중을 해산시키는동시에 동회의긔를 압수하고또한 래년도 예산안을압수하며 일변으로는 동회서무부 상무집행위원 정상렬(鄭相烈)군과 임시의장이든 김경렬(金敬烈)량군을 호출하야 장시간심문이 잇섯스며겸하야 여흥까지 금지를하엿슴으로 일반인사들은 분개하여 마지안는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동회의긔가 태극긔를 모방하엿스며 예산안중에 로동야학(勞動夜學)이라는 문구가 로동자야학이라 하지안코 로동이라는것이 불온하다는등이든 하다는데 호출되엇던 량씨는아즉 무사히돌아왓스나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아니한듯하며괴산경찰서의금후방침이주목되는중이라더라(괴산)

大邱赤痢蔓延

근일대구시내에는 적리병(赤痢病)이만흔바 더욱이봉산뎡(鳳山町)일대에는 스물다섯명이나됨으로 이에크게놀란 대구서에서는 지난팔일에 경찰부와대구부 응원을어더 대대뎍으로 봉산뎡일대를소독하엿다 고(대구)

巡警局襲擊하야 局長以下射殺

대안디방에마적횡행

◇人心이極度로不安

최근조선 대안중국(對岸中國)디방에는 관군(官軍)의 대개가 산동성(山東省)방면전쟁에나간틈을타서마적(馬賊)의횡행이심하다는정보가최근모처에도착되엇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신군(新軍)과고구주(古九州)의련합마적떼는 지난삼일림강현 모아산(臨江縣帽兒山)을습격하려는계획으로 그권위대를 보내어삼도구(三道溝)의순경국(巡警局)이개소를 습격하야순경국장(巡警局長)과 구관(區官)을 총살하고 총긔(銃器)약간을 탈취하여가지고 돌아간후다시 그이튼날인 사일은 오도구(五道溝)과 순경국을 습격하야 순경국장과 순경여섯명을 총살하고물러갓스며 다시 팔도구(八道溝)방면에는 량광(兩廣)의 인솔한 마적일단 륙십명이 이동하는중임으로동디방은인심이극도로불안한중에잇다더라

京畿道管內 移秧全部終了

농가에는희색만면

경긔도(京畿道)관내의륙월말현재의 이앙성적(移秧成績)을보면십륙만 칠천 삽십이뎡보로총면적의 팔할삼부륙리 이엇스나칠월초순이래로비가오지안허 일반농가에서는매우불안한가운데에싸이엇스나 지난 팔일오후부터나린비로는커도십일까지에는관내십구만구천삼십이뎡보는전부이앙하게되어일반농가에서는깃버하기를마지안는다 더라

남의賞을 獵食한郡廳員

지난륙일 오전십시경에 엇던청년한사람이 분긔가등등하야 경찰서에들어가 군농회당국(郡農會當局)을걸어서 자긔명의에당선된일등상 소한필을 당장바다달라는사유로 설유원을 데긔하엿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은즉 맹산군농회에서 생견판매를장려하노라고 경품권을 뽑게하야판매자들에게 경품을부처서 일반에게주엇든바 지난륙월이십륙일에 맹산군맹산면 수정리(孟山郡孟山面水晶里)박룡수(朴龍洙)라는 사람의명의로 일등상이 나온것을 아모리유도업시 자긔네임의로 취소하여 버렷다는바 원래긔박룡수는 자긔모친으로 륙칠십리나되는 옥천면(玉泉面) 생견판매장에 자긔집고치를 팔아오라고 보내엇든바 그모친강영규(姜永奎)는 예수교회당에 가노라고 맹산군련합회(孟山郡聯合會)우하섭(禹夏燮)에게 위임하엿더니 권긔우하섭은 다시맹산농회조수 김윤필(孟山農會助手金允弼)로하야금 추첨을하게하엿든바 요행히일등이 나왓는데 군청서무주임 삼삼항부(三森恒夫)는직원이라하여 그권리상품을무효로 하엿다고 그와가티경찰서에 소를바다달라고 설유원을 데긔하엿다는데 일반은그처분을 기다리며 피해자박룡수는 당디경찰에서 명확한처분을하여주지안흐면 다시추첨 유효확인 청구소송을 데긔하리라더라 (맹산)

모히中毒者檢擧

경북례천(慶北醴泉)에도모히중독자가 점점늘어 사십여명에 달함은아니라 이것을긔회삼아 모히밀매자가 속출하야 적지안흔해독을 끼치는고로 례천각사회단데는 물론이오 뜻잇는자는 엇더한방침을 취하든지 근치하야다시는 못한례천을 맨들어보가하고 여러가지로 그대책을 연구하든중 례천경찰서에서는지난륙일에아편중독자와밀매자여섯명을검거하야 엄중취됴하고 각각법률에처하엿다 고(례천)

德川公普 女生徒動搖

평남덕천군읍내(平南德川郡邑)공립보통학교 오학년여자부일동은지난칠일아츰에 책보를교실에다버리고일제히 어머로숨고만것을일부학부형들의권유로등교는하엿스나 아즉 동요중에잇다더라

수日

第一回 朝鮮庭球俱樂部聯盟戰

午前八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太陽對白熊戰、金剛對太陽白熊戰敗者戰

料金 普通廿錢 學生十錢

主催 朝鮮庭球俱樂部聯盟

後援 朝鮮日報社·朝鮮庭球協會

夢寐에그리든愛人맛나 宿願未遂코自殺

친형에게로자라도어드려고갓더니 모질손한대가돌보담도더쌋듯하여

世態의淆薄骨肉의無情

두사람의 사랑의열정은 광풍에붓는불과가터 맹렬하나 리해업고랭정한친형(親兄)은십년만에차자온 자긔동생과 애인을함부로 천대하며 쏘차내어마츰내세상을 비관하야 양잿물을먹고최후로「사랑하는당신을두고나는영영 먼길로가노라」는애닯는목소리를 남기고한만흔 세상을 저주하면서 불귀의손이 되고말앗다는 악착한사실이 잇는바그자서한바를 들으면 함흥군풍양리김재윤(咸興郡豊陽里金載允)(三六)이라는청년은 지금으로 부터팔년전에 일본대판(大阪)에가서양복짓는것을배우고잇든바그이듬해봄에

원적을 정평군신상(原籍定平郡新上)에두고역시대판에가잇는장금선(張錦仙)(三二)이라는처녀를 엇던장소에서 서로맛나게되엇는데 그때부터 김재윤과 장금선두사람사이는 영영히 잇지못할 사랑의싹이생기게되어 산설고 물설고언어풍속이다른외국에서외로운몸으로온갓고통과 쓰린고초를 당할쌔마다두사람은 서로 위로하며영원한장래를변함업시 행복스럽게 살자는것을 가슴속에 그려두고황망한광야에서 락원의 행로를찻고저하야 아모걱정업시 두근거리는두사람의가슴은날이갈사록탐탐한이엇스나

절박한 그들의사정은할수업시서로 떠나잇게되어 맛난지약이개월후에 장금선은 대판을떠나 동경으로 가게되엇다일각이삼추가티정답게지내든그들사이는 한장편지로써 겨우안부나 알게되엇더니 그후김재윤은진재(震災)로인하야함흥으로돌아온후로 엇지된 소식을서로몰라화조월석을 근심속에 보내든바작년륙월에장금선은동경으로부터 함흥에돌아와서 꿈인지생시인지 오랜시일을두고 서로거처를몰라 답답하게 지내든애인을다시반가히만날시긔를엇게되엇스니그쌔는마츰

쏫피고 새노래하든 금년삼월이엇다 그들사이에는 항상롭질이업슴으로 외국으로 나가고저하나 뜻대로되지못하야 애처로운 세월을랑비하다가 신흥군동상면원풍리 (新興郡東上面元豐里)에잇는 김재윤의친형김재교(親兄金載敎)를차자가서반가히맛나는 동시에 려비라도얼마어더가지고 생각하든뜻을 성공하여보리라는 작당으로 지난륙월이십오일에 두사람은 함께떠나 자긔형님집으로 가게되엇다 연약한장금선은 가는도중에서발병이나서 것지못하게될 험악하기로 유명한 부전령(赴戰嶺)이쒸어도감히걸어서는 목적디까지 도달하기가 불능하야마츰내말(馬)한필을세로어더서 **장금선**은타고 김재윤은 경마를들어 천신만고를 다격그며 동경하든형의집을 가고보즉생각하든바와는 천연달라서 형의처되는 사람은 무한히 랭대를하며『너희들이데서불량녀자를 어더가지고 말에까지태워왓는가』하고 여러가지로 불측한언사를 하나재윤은 아모말도아니하고 다시생각하기를 형님은나를 반가히마자주련이하고

맛나기를기다리고 잇든바형재교는어머로와서 자긔처의 말과가티 역시배척하며『너는우리집에 잇슬필요가업스니 어서다른데로가거라』하며 무한히 학대를함으로 두사람은할수업시 발걸음을돌려 그이웃에잇는 자긔사촌형의집에가서 두사람은 서로붓잡고 랭정한세상을원망하며 눈물로밤을 새웟다는데 이튼날아츰에 또다시형의집에 차자가 백방으로말하엿스나 완강한형은 도모지듯지아니함으로 마츰내서로 쟁투까지잇서 애매한재윤은 결국경찰서에까지 불려가고야말앗다는데 그이튼날 아츰에 재윤은하도속이 답답하야 금선이와함께 남산에나 올라가자하야

무서한 방초를 자리하고 실음업시 울다가 금선은긔진하야 세상을 모를지음에재윤은미리준비하여가지고 갓든 사발에다가 소ー다를풀어마시고 정신못차리는 금선의 손목을붓커쥐고여 보금선씨나는 이세상사람이아니요 벌서내길갓은 영원의나라요하고 최후로몸을짓는소리에 금선은엄작놀라 눈을떠보니나무토막우에 빈사발 한개가노혀잇슬쑨이며 사발속에는 소ー다물이 남어잇슴을 보고전신에 소름이쒸쳐 엽헤를봇다보니 자긔의사랑하는 재윤은벌서이세상사람은 아니엇다 창황망조하야 엇절줄 모르는금선이는 볼그럽이

남산을 바라보니그곳에는마츰나물캐는 어린 계집아이들이잇슴으로 구원하여 달라하엿스나그아이들은무슨영문인줄 모르고 술이취하야 놀어젓는가하고비슷비슷피하여갈뿐임으로하시 동리사람을 청하야구원코자동면함지원병원(同面咸地院病院)에 입원하엿스나이미죽기로작정한 재윤은 다시돌아오지못할길을 떠나고 말엇다는데그의애인금선은소복을입고최초한얼골에 눈물흔적이가득하야나는재윤씨를 위하야 삼년을소식수절(蔬食守節)하겟노라하엿다는데

이소식을아는사람은누구나재윤의죽엄을앗갑게생각하는동시에그의형김재교의몰리해한것을비난한다더라(함흥)

이동쌍네 모부진가 伊首相褒賞

이태리수상(伊太利首相)「뭇소리니」씨는로마시중에 사는『그난도、쌀치니」라는 사람의안해가 해마다 쌍동이를 나허어린아이가도합여덜명인바부아모 병이업시 잘자란다는소문을 듯고그집을 차저서축하를 하는동시에 이가티건강한 어린아이를 만히낫는것은 이태리의 권도를위하야매우감축한일이라고오백『리란』을주고돌아왓다 더라(로마통신)

葬禮式에喪服差別로 長老시리告訴

구타욕설이무소부지 元山教會의不祥事

함남원산(咸南元山)에잇는광석동(廣石洞)례배당의장로차준승김영제(車準綱金永濟)두사람은지난칠월삼일에석우동(石隅洞)에잇는례배당장로(禮拜堂長老)장홍길(張弘吉)을 상대로장로회비표시찰회(視察會)에 고소(告訴)를데긔하얏는데이케그내용을듯건대 권긔례배당에 만흔공로자인리호재(李好宰)씨의장례식장(葬禮式場)에서권긔장홍길이가차갑두장로를보고상복의차별을하엿다하며무수한욕설을하고심지어구타까지하엿는데권긔피해자두장로는분개하야고소를데긔한바장홍길은차별적대우를하엿다하야맛고소(告訴)를시찰회에데긔하엿다 더라(원산)

노름판에돈일코 强盜로虛僞告發

사긔도박에돈을일어바리고 강도에게쌔앗겻다고거짓고발

평남대동군부산면 룡궁리(平南大同郡斧山面龍宮里)김의식(金義植)(三二)이라는사람은 지난이일 평원군숙천우시장(平原郡肅川牛市場)에소를 살어왓다가 소를사지못하고 자긔집으로 돌아가든길에 엇던사긔 도박군에게속아 현금일백륙십원을 일어버리고 분함을이기지못하야 순안경관주재소(順安警官駐在所)에가서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엇스니그강도를 잡아달라고 허위고발을한사실로 김의식은 방금평원경찰서(平原警察署)에 인치되어 취됴를밧는다는바 이제그내용을듯건대 김의식은 그날소를 사지못하고 돌아오는길에 엇던청년이 길가에서 돈을어덧다고하면서 어든돈은 동행하든우리에게 돈이가지되 사람이만흐니 자미업스니 밀밧으로가자하야 동행하든네사람과 김의식은 가티밀밧으로가서 돈을분배할지음에 한청년은말하되 자ー이돈은 어든돈이니 우리가노름을하야 잇이는사람이 가지기로하자함으로 여러사람도 그를 찬성하야 이에노름이 시작되엇섯다는바 권긔김의식은 자긔가 분배바든돈을 다일어버리고 도 자긔의가진 현금사십원을더 일어버렷섯는데 김의식은 자긔가불리할것을 생각하고 그곳을떠나 자긔집으로 돌아오랴고하얏스나 그들은 노름을더하자함으로 그곳은 이미일은돈을 회복시킬겸 그곳은 조곰떠난순안면남산리(順安面南山里)어느폴밧헤모히어 밤이깁허 새로두시까지에 가진돈을 전부일어버리고 그와가티 허위의신고를한것이라는데 그들 사긔단은경성(京城)에잇는김모외몃사람으로 판명되어 방금소할경찰에조회중이라는데 권긔 허위의신고를바든소할평원서에서는 공연헛톨에 상사일을 두고활동하얏다더라(평원)

瘧疾喰菌草

『모스코』의과대학(醫科大學)에서는 학질(瘧疾)을매개하는『장구벌레』를먹는풀을발견하엿는데 이풀은『모스코』부근에잇는『늡』과『연못』가운데에 생장한것으로 학질이만흔디방에갓다가심으면학질을 권멸할수가 잇다는바권작『모스코』에와잇던일본경도데대(京都帝大)교수호뎐의학박사(戶田醫學博士)는『모스코』대학을방문하고 이풀을 어더학술상에 참고로 쓰려고경도데대학의 표본을 보내기로되엇는데 호뎐박사는말하기를 이풀을대만과가티 학질이만흔 곳에갓다가심으면 매우효험이잇겟다고 말하엿다더라(모스코뎐보)

◇普專巡講團 九日夜出發◇

긔보=보전(普專)순강단일행은 예뎡과가티 구일밤에 예뎡디를 향하야 출발하얏다고

水中孤魂何處尋 寡婦의呼子痛哭

창황망조중경찰에호소한들 죽은아들다시오지아니한다

仁川金谷의一場悲劇

이것이 웬일이오 이것을엇지하나 목이메어울지도못하고 가슴을 두다리며 손에다뎐보한장을 들고 지난칠일오후네시경은 되어서 창황망조히 인천경찰서에 가서 죽은자식의 시테나차자달라고 하소연한 약오십세가량의녀자하나이잇섯는바 그녀자의 홍홍늣기며 우는광경과 나무에도 돌에도 비할데업는그의정경은 누구나 동정의눈물을금할수업섯다 자세한 그내용을듯건대 그는 인천부금곡리(金谷里)이십번디십삼호에사는박씨라는당년사십구세된녀자로서지금으로부터륙년전에 과부의몸이되어그아들로철호(盧徹鎬)(二三)와서로의지하야 당디직야정미소(直野精米所)에가서 모자서로품팔이를하야 약간수입되는 임금으로그날그날의 생활을 유지하든바 요사히 여름이된후부터 권긔정미소가 휴업을하게되자 겨우연명하든 그수입이나마 업서지게됨으로 할일업시 로철호는그동안 푼푼전전으로 더금하여두엇든일원이십전 동상에서 일원을 가지고 선창에나가서 『게』(蟹)장사나 하여볼가하는 생각으로 지난이일에 그집을나와인천역부근선창으로나갓든바그쌔마츰시내빈뎡(濱町)십이번디에서 어상업(魚商業)을하는일본사람 난파영차랑(難波榮次郎)이라는사람이 자긔의소유인 석유발동긔선(石油發動機船)의 선원이라하고 선원한명을 모집함으로 그것을안로철호는 십분다행히알고 지원을한결과 겸원에응모되어 그배에서 밥을지어주는직업을 가지게되엇는데 지난칠일에 천만뜻밧게 경성마포(麻浦)로부터 로철호가 수중사망이라는뎐보가 연겁허 두번이나 로철호의본가로옴으로 권긔박씨는 련지도지하야 현장에가려하나 도한푼도업슴으로 그길로곳인천경찰서에가서호원하엿스나 하등의효과가업시 자긔집으로돌아가고말엇다

新正會에서 實地出張調査

별항에 보도한바와가티 박씨의 사정이 넘우비참하고 가련한상태에 싸커잇다는말을들은 인천신정회(仁川新正會)에서는 권긔박씨의집을 방문한바 그의주택이라고는 토굴가튼 움집에생활을하고잇스나 그의 정상이 또한그러함으로 신정회상무위원인 곽상훈(郭尙勳)씨는 그이튼날새벽에 박씨를다리고 그뎐보의발신디인 경성마포동 오십일번디 박긔범(朴基範)의집을 차저가서그사실을조사한바 그배주인인난파영차랑은말하기를지난륙일오후령시(零時)쯤되어서김포군(金浦郡) 양동면(陽東面) 염창리(鹽倉里)압바다를지나다가 마츰조수가싸커서탓든배가 모래우에 언치엇슴으로 선원세사람이그배를나리어물잇는데로그배를떠밀다못해서 그대로두고 목욕을하든중 로철호는미처 배에오르지못하고잇슴으로 권긔배주인난파는백방으로 구케하려하엿스나 급한물결에엇지할수업서무참히도수중에서 죽엇다하며 그시테는 그이튼날정오십이시경에 건지엇다는바 그시테는 그배주인의 주선으로 구일오후여덜시경에 인천으로 운반하여온다 더라(인천)

洋傘專門窃盜

론산군양촌면양촌리(論山郡陽村面陽村里)배휴승(裵休承)(二六)은군산시내다섯곳에서 양산다섯개와 두곳에서 양복두벌을 절취한것이발각되어 군산서(群山署)에서취됴를밧다가 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는바 그는자칭권 군수의자커라고하며 전과 일범자라고 (군산)

不義로姦通코 生兒하야火葬

관계자는친척간이다

懲役各三年을求刑

긔보=문경군산양면 위만리(聞慶郡山陽面渭滿里)엄주곤의 안해(嚴柱坤妻)권사천(權沙川)(三九)은 자긔남편이 오년전에일본으로가고 업슴으로 오랜세월을 홀로잇스면서 그의불갓가티타오르는성욕(性欲)을참지못하야결국친척엄주곤(嚴柱坤)(四五)과 정을 비밀히통하야 단꿈을꾸든중 그의배속에 죄악의씨가생김으로 그들은세상의 이목을부끄러히생각하고 아이를 나케되자 즉시부억에갓다넛코 불을때어생화장(生火葬)을하여버렷든바이것이 발각되어 데포되엇다함은 당시보도한바와 갓거니와그후권긔간부간부 두명은 데포되어 대구디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지난 칠일 공판이개뎡되어 결국 곡뎐검사(谷田檢事)로부터징역각삼년(懲役各三年)을구형한바 판결언도는 오는십사일이라더라(대구)

注目中의兩大事件 盈德青聯調查

강구일본인의살인사건과 녕해조선인소년사형사건

警察當局도調查中

긔보=경북영덕강구(盈德江口)의일본인삼호(三好)소천(小川)외한명이 조선인박경화(朴敬化)를강물에 던저죽인것과 녕해(寧海)김긔현(金基鉉)이가자긔 아지를 당디보통학교 학생두사람이 작란하든쇠테 돌로눈을떠렷다고 십팔시간 동안이나사구류를시키고 급기야 이십원의배상을 바닷다는등의 사건은아즉까지 쯧이나지못하고 잇든바 강구사건은 두명이방송되고한명은 긔소(起訴)중에 잇스며녕해사건은 아즉도여하한 종결이나지못하야 일반으로부터 약간의쭈롱은 잇섯스나 하등의처치가나지 안튼바 지난칠일오후두시반경에 영덕청년련맹(盈德青年聯盟)대회를개최하고 당대사건을 됴사(調查)하기로 결의되어 좌긔위원을 선정파견하엿다는바 칠월십일 본대회에보고하기로 하얏스며 보고바든후에서 선후책을강구하겟다는 결의와지 되엇다는바 일반은주목중에잇다 더라(영덕)

委員=劉熊殷 朴秀成

憎房悲曲 (映畵撮影進行)

獨鵑 作 羅雲奎撮影監督 [52]

지나간날 (七)

쏫피고 새노래하는 화창한봄날 ── 이날은녀자 미술학교 졸업식이거행되는 날이엇다

이날의 졸업생인 한명숙에게는 반드시와서 자긔의 깃붐을논화주고 축복하여줄 필수가오지안흔것은 깃붐에메긔길업더 섭섭한일이엇다

식을마치고 헤어지려할때에

『명숙아!』하고 자긔를불으는소리에 명숙은 뒤를돌아다 보앗다

등뒤에는 쓴하지아니한 자긔의오라버니 명진이가 서잇섯다

『아──옵바』

명숙은 반가웟다

『오오명숙아 얼마나깃부냐 네의오늘을 축복하기위하야 나는하로일을 쉬이고 일부러와왓다』

동긔애(同氣愛)에넘치는오라버니의축복에 명숙은눈물거웟다

명진과 명숙은 학교응접실로들어갓다

어데까지나 초라한 로동자가튼형의행색과 ── 신혼한안해가튼누의동생의그것은암만해도조화(調和)되지안엇다

『그동안 공부를계속하느라구얼마나 고생햇느냐 학비가군졸하여 얼마나 애를썻느냐 나도마음으로는 뭐도애를썻지마는능력이 부족한것을 엇지할수가잇드냐 아무런고생을하고라도오늘이엇스것만 다행이다 모ー다 네가굿세인까닭이엇다』

위로와 축복을 거듭하는 오라버니의말은 명숙의가슴에 몹시도괴롭게들렷다

『아니얘요 옵바 저는아모고생도업섯서요 학비도 별로군색지안엇서요……』

『그래 정말 그랫니?』

명숙은 자긔의흰팔목에서 유난히빗나는 금시계를 저고리소매로 쓸어덥흐며 다시말을니어서

『저거시기니…… 저 제가노흔 수가잘팔리기쌔문에요 학비는 그렁케 군졸하지안엇서요 저는 몰이혀 옵바가 애쓰실것이미안해서 못견되엇서요 어데게신지 알기나해야 차자가뵙기라도하지요 그런데 옵바지금은어디게서요?』

명숙은 아모리 동긔의옵바에게라도 저간자긔의 사정을숨기지 안코 다말할용긔는업섯서 이러케 말쯧을돌려버렷다

『나? 나잇는곳말이냐 그것은 몰라도조타 일정한 주소가업스니싸 그날일하는장소에 쌀아서 아모데거나 자니싸 그리고이제는네가 졸업을하엿스니싸 나는 유테로운을 조금식하여 밥이나 먹고는살것이라 사회를 위하여 무슨일을좀해볼까한다』

『옵바그럼 제가잇는데 가티 게셔요』

『싫타 나는나대로다녀야한다 너는학교도 마쳣스니 이제는 압길을경하도록하여라 네가 잇는 곳이나 알려주면 내가틈잇는대로 차자나가마』

『저는 얼마동안서울잇서서직업을 구하든지 엇더케하든지할 터이얘요그러니옵바저잇는데로 가티가서요』

『아니다 나는나갈데가잇다 너 잇는데 나알려다구 그리구헤지자』

명진은 고집을하고 나가바렷다

기다리든 학교도마치고 정성을 다한 병풍의수도 이제는쯧이낫것마는명숙이가 바라고 기다리든정혼한날은 오지안엇다 그뿐 아니라 필수는요즈음와서는 명숙의숙소에 발도 들여노치안는것이엇다

명숙에게는또한가지 크다란거정이잇섯다

그것은지금까지붓그러워서필수에게도알리지못하고감추고잇는 셧달이나된자긔배안의생명이엇다 첫사랑의씨엇다

이거정은 필수가 자긔를멀리하면 멀리할사록 점점커지는것이엇다

그래서명숙은보구도십고거정도되어 매일처럼 필수에게편지를하엿다 그러나 필수에게서는회답한장이업섯다

명숙은마츰내야속한사정과크다란거정을하소연하는마지막편지를필수에게부첫다

開戰을압두고 各團練習猛烈

부산서개최될 전선정구대회

남선일대(南鮮一帶)의『스포스맨』들의긔대하는 부산진청년회(釜山鎭青年會)주최와 본보부산지국(釜山支局)후원으로 전조선뎡구대회(全朝鮮庭球大會)를개최한다 함은 본보에이미 보도한바어니와 능히금년대회는 전조선(全朝鮮)뎍으로인긔가확대되게되엇다하며 한산하든 경남각디방에서도 다수히 참가하게되엇는데『스포스』계에도 자못인긔가집중되어 호구가(好球家)의 열렬한 긔대를 위시하야 부산에서 초유한 대성황으로 일반뎡구계(庭球界)의쟁투뎐이 되개되리라는바 근일참가할 각단데에서는 우렴입에도불구하고 놀라운긔술로단련연마를발휘하고저맹렬히련습을행하는중이라는데 대회일자는 칠월삼십일에개최할예뎡이엇든바여러가지관계상 일주일을연긔하야 오는이십사일에 거행하기로 작뎡되엇다 더라(부산)

電話로詐欺타 發覺되어逮捕

지난팔일 오전아홉시경에 엇던한자로부터영천(永川)에서곡상(穀商)하는리은수(李殷秀)에게 뎐화하기를 자긔는 영천읍내에 잇는리린석(李麟錫)이라한후지금대구에서쌀(米)을살터인데 현금삼백오십원만뎐보환(電報換)으로 보내어달라함으로 리은수는 허우나이상함으로 리린석의집으로 통지하야 주인이잇고업슴을알아본결과 직접말하든리린석이가 자긔집에 잇슴으로엇던자의사긔수단이틀림업다고영천경찰서에가서 전후이야기를보고하야 범인을잡고저 하든중마츰대구우편국에서뎐보환을가지러 온자를잡아 데포하야 영천서로보내어취됴하는중인바 그와가티 사긔수단을행한범인은 례천군 보문면장본동(醴泉郡普門面張本洞)리춘만(李春萬)(三一)으로판명되엇스며 권긔리린석은 영천에서가장일홈이놉흔부자이라더라 (대구)